

여수시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

84개소서 110개소로 대폭 늘려 물품·설비·홍보 등 다양한 지원 소비자 단체와 물가안정 캠페인도

여수시가 최근 큰 상승폭을 보이는 있는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 84개소를 110개소까지 늘리고, 다양한 인터넷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착한 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정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착한 가격업소에는 ▲설비, 기자재, 소모품 등 물품 ▲쌍쌍여수 먹깨비 가맹점 등록 시 착한 가격업소 아이콘 표시 ▲임식데이블 지원 사업 가점 우선권 부여 ▲여수맛, 여수야 어플 홍보 등이 지원된다. 또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 여수 제일산업은 지난달 29일부터 고무장갑과 지퍼백, 주방세제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어부바' 박스를 착한 가격업소에 전달하고 있다. 시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5%를 넘어섬에 따라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 합동 물가안정 간담회,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착한 가격업소 확대를 비롯해 건전한 소비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선발해 지역물가 상승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석공예 명인 이귀재 작가 '수반전'

20일까지 갤러리 107

석공예 명인 이귀재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곡성군은 7일부터 20일까지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서 석공예 명인 이귀재 작가의 '수반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귀재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으로 '담다'라는 주제로 자연석을 직접 쪼고 갈아 형상을 만들어낸 수반 작품 52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평생을 돌과 함께 곡성을 지키며 외길을 걸어왔다. 마음과 정신 모든 이상을 담아낼 수 있는 수반을 통해 창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이번 개인전에서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은 전액 곡성군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조금이나마 곡성 교육과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귀재 작가는 창덕궁, 청와대 등 다수의 문화재 복원 공사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한국예술문화명인, 한국 문화재 기능인협회, 한국 공예가협회, 근대 황실공예예술가협회, 곡성미술협회 등



이귀재 작 '담다'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남도한바퀴 버스타고 보성 판소리 즐기러 가볼까

광역순환버스 보성 코스 만석 행진 매주 토요일 '토요 상설樂' 공연

"버스타고 보성 판소리 즐겨요." 남도의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는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보성 코스가 여행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만석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남도한바퀴에서 보성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은 매주 금요일 출발하는 '보성·순천·여수·고흥' 코스와 토요일 출발하는 '장흥·보성' 코스가 있다. 보성군은 남도한바퀴 여행객을 비롯해 보성군 관광객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오후 3시) 보성 판소리 성지에서 토요 상설락(樂) 공연(사진)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내외로 진행되고, 관내 국악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대중의 공감을 끌어낼 창곡, 퓨전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울포해수욕장 인근 울포해수욕장센터



를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선사하고 싶고 이번 계기를 통해 남도의 대표 관광상품이자 공연으로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8월까지... 신고센터 운영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피서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을 나선다.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홍보하고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해 농업지원과, 식품위생과, 관광과, 매실원예과, 철강항만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대표적 여름 휴양지로 꼽히는 백운산 4대 계곡과 민박,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또 물가대책위원회,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인연합회 등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할 계획이다. 정구영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하겠다"며 "백운산 4대 계곡 주변 식당, 민박,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내 가족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친절과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지켜지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웹드라마 '윤슬' 독일 웹페스트 '베스트 커스텀 디자인' 상

여섯번째 작품... 해외 무대 주목 일곱번째 '무지개' 각종 후보 올라

여수시가 바다와 자연, 관광을 배경으로 자체 제작한 저예산 웹드라마가 해외 웹드라마 영화제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섯번째 웹드라마 '윤슬(Yunseul)'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독일서 열린 제8회 독일 기센 웹페스트 Die Serie 2022에 출품돼 '베스트 커스텀 디자인(Best costume Design)' 상(사진)을 받았다. 독일 기센 웹페스트 Die Serie 시상식에서 호명된 '윤슬'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 서울 등 웹드라마 영화제에 전례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여수시는 2016년부터 해마다 자체 제작 웹드라마를 발표하면서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을 국내외 해외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신지끼의 사랑이야기'(2016), '여명'(2017), '마녀목'(2018), '동백'(2019), '호접몽'(2020), '윤슬'(2021) 등 총 6편 모두 국제 웹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첫 작품은 2500만명의 저예산이 투입됐으며, 이후 편당 수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조금씩 보탤 예정이다. 여수사건의 아픔을 담은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황금늑대상을 수상하면서 해외에 사건을 알리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일곱번째 드라마 '무지개' 제

작을 마무리했다. 전라좌수영에 배속된 약공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무지개'는 오는 8월 제8회 서울 웹페스트에 초청돼 베스트 웹시리즈 오브 올 장르, 베스트 드라마, 베스트 에디팅, 베스트 액터, 베스트 앙상블 캐스트, 베스트 서포르팅 액트리스 등 6개 부문 수상후보로 올랐다. 제8회 서울웹페스트는 8월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롯데시티호텔 엘 컨벤션에서 해외 28개국 151편 국내 40편 등 총 191편이 여수웹드라마 '무지개'와 수상 경쟁을 벌인다. 시나리오 작성과 제작을 담당한 김상욱 팀장은 "저예산 고효율의 웹드라마가 뉴미디어시대 K-콘텐츠를 타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웹드라마는 관광 휴양도시인 여수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움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 전해지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일류 순천 2050 TF' 이달 발족

MZ 직원 등 다양한 세대 참여

순천시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일류 순천 2050 TF'를 구성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일류 순천 2050 TF'는 실무적으로 경험 많고 유능한 직원들과 참신하고 스마트한 MZ세대 직원 등 다양한 세대와 여러 분야의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7월 중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모방하는 게 아닌 창조한다는 자세로 ▲순천시의 미래비전과 일류 순천의 독보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탄소 중립 경제, AI·수소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며, ▲거점별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TF를 통해 민선 8기 초기부터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프로젝트 발굴로 국비를 적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4기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에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 순천 2020'을 수립했다"며 "과거보다 더 내실 있게 TF를 운영해 품격있는 시민과 신뢰받는 행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을 창조하는 도시, 일류 순천의 모습을 그려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